



전주 문화재야행 자료사진.

## 대한민국 대표하는 '전주 문화재야행'

문화재 활용사업 평가 전국 1등  
내년에는 평일에도 펼칠 계획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의 색다른 야간 풍경과 다양한 문화재, 색다른 공연을 베풀려 선보인 2018 전주 문화재 야행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간 문화콘텐츠로 인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 콘텐츠 사업으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로 3년째 공모에 선정돼 전주만의 차별화된 야간문화 콘텐츠를 선보였다. 시는 최근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문화재청 주관 문화재야행 워크숍에서 '2018 전주 문화재 야행'이 문화재 활용사업 평가에서 1등을 차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 2016년부터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올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숲사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기전 돌담길을 활

용한 순환형 행사 공간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시간대별로 다양한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는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 등으로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최우수 평가를 획득했다. 특히, 올해 전주 문화재 야행에서 선보인 이야기술사 프로그램은 배우지방생들로 구성된 이야기술사들이 전주 문화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선시대 사람의 음성으로 실감나게 전달하여 가족단위 관광객, 연인들, 친구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는 이야기술사 프로그램을 경기전 상설프로그램으로 준비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야간문화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매년 전주 문화재야행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 중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콘텐츠를 상설화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 야간 문화재 기행 프로그램인 달빛야행을 상설화해 올해 '2018 왕과의 산

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왕과의 산책은 조선시대 6명의 임금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경기전과 관련된 문화해설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부터 총 23회 프로그램 모두 매진을 기록하며 문화해설의 혁신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으며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내년에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2019 전주 문화재 야행을 운영할 예정으로, 전주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전주한옥마을의 밤을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는 문화유산이 풍부한 고장이다, 어진과 사교를 지켜낸 문화재 지킴이의 고장"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지역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문화재를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 일상을 벗어나 예술가가 된 '야호학교 청소년' 팔복예술공장에 작품 전시

예술 비상 프로젝트 2기 종료식

전주형 창의교육모델인 야호학교의 청소년들과 전북출신의 예술작가가 함께 만든 작품이 팔복예술공장에 전시됐다. 시는 지난 8일 팔복예술공장 1층 컨테이너 그림방에서 야호학교 청소년과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호학교 청소년들이 11월부터 6주간 임택준 토달아트 작가와 함께 만든 작품을 완성하고 설치하는 '제2기 예술 비상 프로젝트 종료식'을 가졌다. 예술 비상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주형 창의교육인 야호학교와 전주 문화플랫폼 팔복예술공장이 예술을 활용한 첫 번째 협업

프로젝트로, 이날 설치된 작품에는 예술작품 창작에 참여한 청소년과 작가 이름이 기록돼 팔복예술공장의 상설 전시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청소년들은 그간 임택준 작가와 함께 제작해온 마법사 모빌 인형을 최종 조립하고, 팔복예술공장 야외광장에 작품을 설치했다. 협업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한 한 야호학교 청소년은 "가나간 작업시간과 고된 작업으로 중간에 그만 둘까도 고민 했었지만 친구들과 길잡이교사인 최음선생님께서 격려해주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면서 "작품이 완성돼 설치된 것을 보니 정말 뿌듯하고 참여하기를 잘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프

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일상을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팔복예술공장이 존재하는 한 우리 청소년들이 만든 작품이 항상 전시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을 더욱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호학교와 팔복예술공장은 협의를 거쳐 내년에 청소년 학교 밖 예술 놀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063-281-5324, 5311)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철 기자

## 네이버·레진, '웹툰 불법 유통' 밤토끼 상대 승소

법원, 밤토끼 불법 유통 책임 인정  
운영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수감

국내 최대 규모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가 20억원대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지난 7일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네이버와 레진은 허씨로부터 각각 10억원씩 받게 된다. 웹툰업계는 지난해 국내 웹툰시장 규모가 724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허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해 입은 피해는 2400억원대 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레진은 지난 7월과 9

월 밤토끼를 상대로 각각 피해액수 중 일부인 10억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네이버 측은 "이번 민사소송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사 웹툰플랫폼 및 작가들을 대표해서 제기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추후 청구금액을 늘리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 2016년 10월계 유령법인을 설립한 이후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웹툰 9만여편을 게재하고, 도박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를 유치해 광고료 명목으로 총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8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뉴시스

## 개천 속 열아홉 청춘들을 위하여

박후기시인 '옆집에 사는 엘리스' 발간

"슬픔이 달콤하게 느껴질 때를 조심해야 한다. 그럴 때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문틈, 책갈피, 술병, 입술, 시험지 같은 것들을 파고들며 어찌면 우리 세상의 틈만 노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2003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한 시인 박후기(50)가 장편소설 '옆집에 사는 엘리스'를 냈다.

박 시인은 2006년 신동엽문학상을 받았다. 당시 수상 시집을 통해 기지촌 풍경을 잔잔하게 드러내 주목받은 바 있다. 이번 소설에서는 기지촌의 과거를 짚었다. "아주 먼 옛날이야기일 수도 있었으나 더 이상 누구도 말하지 않는 기지촌 이야기는 무늬만 바뀌었을 뿐이다.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아직도 현재진행형일 뿐이다"

제목 '옆집에 사는 엘리스'는 1970~80년대 활동한 영국 록그룹 '스모키'의 대표곡 '리빙 넥스트 도어 투 엘리스'에서 가져왔다. 2006년 박 시인이 낸 시집 '종이는 나무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에 같은 제목의 시가 실리기도 했다. 소설의 주인공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열아홉 살 청춘들이다. 70년대와 크게 다를 바 없던 80년대 초, 미군기지 혼란장이 있는 숲속의 집을 배경으로 10대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부모로부터 가난과 함께 비극적 현실을 물려 받았지만,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애쓴다.

80년대 팝송·가요를 들던 청소년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영국의 하드록 밴드



'딥 퍼플'의 '하이웨이 스타',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게리 무어(1952~2011)의 '파리지엔 워크웨이스트' 등 명곡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가 전해진다. "어쩌면 우리 모두 뒷걸음질치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 몰랐다. 즐거운 집 같은 것은 지금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보다는 그 빈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 그대로 놓여 있길 원했다. 엄마의 빈자리를 새엄마로 채우는 것보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에서 비굴하게 견디는 것보다, 즐겁지 않은 집에 흥겨운 음악을 채우는 것보다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마음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비어 있는 상태로 숲속에 방치되었다" 240쪽, 1만3800원, 가세 /뉴시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